

청소년의 높은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양식, 가족 내 지지, 부모양육행동 간의 관계

COPING STYLE, FAMILY SUPPORT, PARENTING BEHAVIOR IN ADOLESCENTS WITH HIGHLY PERCEIVED STRESS

조인희*† · 이병조* · 하지현** · 유희정***

In Hee Cho, M.D.,*† Byoung Jo Lee, M.D.,*
Jee Hyun Ha, M.D., Ph.D.,** Hee Jeong Yoo, M.D., Ph.D.***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각된 스트레스의 수준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 가족 내 지지, 부모양육행동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알아보고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데에 관여하는 위험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대상 및 방법 : 남녀 고등학교 학생 795명을 대상으로 생활경험설문지를 실시하여 최근 6개월 이내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지각된 스트레스 점수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두 군 모두 대처양식척도와 가정환경척도, 부모양육행동척도를 시행하였으며 변량분석, 판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 인지적 대처, 행동적 대처, 회피적 대처양식 모두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내 결합력과 표현력은 낮은 반면 가족 간 갈등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양육행동에서는 부모 양쪽 모두에서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두 집단을 가장 잘 구분하는 판별요인은 회피적 대처, 행동적 대처, 표현력, 경제수준, 결합력의 순이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낮은 가족 내 결합력과 표현력은 스트레스 수준과 무관하게 행동적 대처양식의 사용을 감소시키며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매개로 할 때 회피적 대처양식의 사용을 증가시켰다.

결 론 : 가족 내 지지적인 환경의 결여는 적극적인 대처양식의 사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높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회피적 행동양식의 사용을 더 증가시킴으로써 정서행동 문제의 발생을 높일 수 있다.

중심 단어 : 청소년 · 스트레스 · 회피적 대처 · 가정환경.

서 론

한국 청소년들은 과중한 학업부담, 입시경쟁, 학벌위주의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스트레스가 실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대처양식이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¹⁾²⁾.

스트레스와 대처양식간의 연관성은 청소년의 물질 남용에 대한 이전의 연구결과 등에서 잘 나타나 있다. Wills 등³⁾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이 일으키는 정서적인 불쾌감 즉 긴장이나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물질의 사용을 자극할 때, 해당 청소년이 어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는 물질 사용에 대해 보호기능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취약성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수행된 피상순 등⁴⁾의 연구결과에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Gil Medical Center, Gachon Medical School, Incheon

**용인정신병원 정신의학연구소 Yongin Psychiatric Research Institute, Yongin Mental Hospital, Yongin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Kyungsang University, Jinju

†교신저자 : 조인희, 405-76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98 가천의과대학 길병원 정신과학교실

전화 : (032) 460-3434 · 전송 : (032) 460-3434 · E-mail : ellen98@hanmail.net

간이 대처양식이나 사회적 지지와 상호작용 하였을 때 물질 남용을 더 잘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이는 자극-개체-반응으로 정의된 생물 신경계의 기본 반응체계에서 개체가 부정적인 자극, 즉 스트레스에 대해 특정 인지 혹은 행동 반응을 결정할 때 다양한 매개요인들이 관여할 수 있으며 이 중 대처양식은 개인의 반응양상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매개요인이라 할 수 있다⁵⁾⁶⁾.

대처양식과 더불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주요요인으로써 가정환경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가족 내에서의 지지적 분위기는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 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특정 대처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스트레스의 효과를 매개하기도 한다⁷⁾⁸⁾. 그러므로 적절한 가족 내 지지의 존재는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인자가 되지만, 반대로 낮은 가족 내 지지는 스트레스에 대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⁷⁾⁹⁾.

가정환경 요인 중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출생 후 매우 초기부터 부모-자녀 관계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해당 청소년의 인지, 행동, 정서 및 심리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환경 요인이므로¹⁰⁾ 이는 스트레스의 원인, 지각, 대처양식 등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신병리와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다¹¹⁾. Rey와 Plapp¹²⁾은 부모의 적은 돌봄과 높은 과보호적 태도가 우울, 불안,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 뿐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와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 부모의 신체적 학대 및 방임행동이 자녀의 우울증, 품행장애, 물질남용, 공격성에 있어서 결정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졌다¹³⁻¹⁵⁾. 그러므로 부정적 양육행동이 스트레스 하에서 자녀의 문제행동 발생에 대한 주요 매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청소년들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이라는 문제행동의 위험요인에 대한 일련의 연구 중 하나로 수행되었으며 청소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의 수준이 가족 내 지지, 부모 양육행동과 같은 가정환경요인 및 개인의 대처양식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소재의 인문계 고등학교

남·여 고등학생 각각 4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은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연구에 대해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구한 후, 자료를 배포, 수거하는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수집된 총 840개의 자료 중 응답을 거부하거나 자리를 비운 경우,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이 일정 기준 이상 부실하거나 누락된 45명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795명이 일차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795명 중 남학생이 391명(49.2%)이었으며 여학생이 404명(50.8%)이었다. 이들을 스트레스 점수에 따라 하위 1/3과 상위 1/3 두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스트레스 점수가 10점 이하인 군을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N=273)으로 하고 점수가 21점이상인 군을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N=276)으로 나누었다.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의 스트레스점수 평균은 5.04±3.34로 하위점수 35.6%가 이에 속했으며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의 스트레스 점수 평균은 32.91±11.98로써 상위 점수 36%가 이에 포함되었다.

2. 연구 도구

연구 도구로는 인구통계학적 자료 설문지와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대처양식척도, 가정환경 설문지 중 가족관계 척도,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1)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Sarason 등¹⁶⁾이 제작한 생활경험 검사지(Life Experience Survey ; LES)로써 국내에서는 이영호¹⁷⁾가 표준화한 것을 청소년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26가지의 생활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최근 6개월 동안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의 여부와 일어났다면 그 일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2) 대처양식 척도

Holahan과 Moos¹⁸⁾가 제작하고 이유리와 권정혜¹⁹⁾가 번안한 건강과 일상생활 형태(Health and Daily Living Form ; HDL)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4문항이며 적극적-인지적(active-cognitive) 대처 11문항, 적극적-행동적 대처(active-behavioral) 14문항, 회피적(avoidance) 대처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로 평가하는 4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해당 문항의 대처양식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3) 가족관계 척도

개인이 지각하는 가족의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Moos와 Moos²⁰⁾가 제작하고 신윤오와 조수철²¹⁾이 번안한 가정환경

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 FES)를 사용했는데, 관계 영역, 개인의 성장영역, 체계유지영역의 세가지 하위 차원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되는 가족간의 관계 차원만을 사용하였다. 관계 차원은 총 27문항으로 결합력, 표현력, 갈등의 세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구성원 간의 위임, 도움, 지지의 정도, 가족 구성원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정도,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표현되는 분노, 공격성, 갈등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각 문항은 '그렇다'와 '아니다'로 대답하는 9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하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 때 해당 하위척도의 특성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4) 부모 양육행동 척도

부모 양육행동 척도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평가하기 위해 허묘연²²⁾이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 보고형 설문지로서 총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감독(Monitoring), 합리적 설명(Reasoning), 애정(Affection), 비일관성(Inconsistency), 과잉기대(Over-expectation), 과잉간섭(Intrusiveness), 방임(Neglect), 학대(Physical abuse)의 8개 하위요인에 대해 부, 모 각자의 양육행동을 자녀가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4단계로 평가하도록 구성된 척도이다.

3. 통계 및 분석

스트레스가 높은 군과 낮은 군 간의 인구학적 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경제수준, 성적 및 양친부모의 존재유무에서는 카이검증(chi-square test)을 사용하였고, 나이, 학년, 용돈에서는 t검증(t-test)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종속변인인 가족 내 지지, 부모 양육행동 및 대처양식에서 두 집단간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과 경제수준을 공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분석(One-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주요 종속변인들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은 군과 낮은 군을 상대적으로 더 잘 구분해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두 집단을 가족내 지지, 부모 양육행동, 대처양식 및 경제수준으로 구분해보는 판별분석(discrimin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을 포함시키거나 제외하는 방식으로는 stepwise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 내 결합력이나 표현력이 대처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한 수준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²³⁾가 권고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data

Variables	High stress group (N=276)	Low stress group (N=273)	Statistics	p value
Stress score	32.91 (11.98)	5.04(3.34)	t=7.83	<.001
Age (yrs)	16.04(0.98)	15.09(0.87)	t=0.60	.546
Allowance (10,000 won)	5.44(9.24)	5.26(8.97)	t=0.22	.826
Sex				
Male	125	148		
Female	153	123	$\chi^2=5.11$	<.05
SES*				
High	6	7		
Middle	225	244		
Low	42	22	$\chi^2=7.10$	<.05
Rank [†]				
1-10	81	80		
11-20	87	90		
21-30	72	62		
31-40	32	22		
41-50	2	7	$\chi^2=5.12$.275
Parents' state				
Both alive	256	261		
Father only	13	9		
Mother only	4	3		
None	2	0	$\chi^2=2.91$.406

* : Socio-economic status, † : Rank of academic achievement

이상의 통계분석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SPSS 10.0 ver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1. 집단간 인구학적 변인간의 비교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인구통계학적 배경에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두 집단간 인구학적 변인들의 평균 및 빈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나이, 학년 성적, 용돈, 양친부모의 존재유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chi^2=5.11$, $df=1$, $p<.05$)과 경제 수준($\chi^2=7.10$, $df=2$,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고 경제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Table 1)

2. 스트레스와 대처양식, 가족 내 지지, 부모양육행동 비교

인구학적 변인 중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과 경제수준을 통제하기 위하여 두 변인을 공변인으로 하여 집단 간 가족 내 지지, 부모 양육행동, 대처양식에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Table 2).

Table 2. Coping style, parenting behavior and family support by stress level

Dependent Variables	Stress level		F
	High M (SD)	Low M (SD)	
Coping style			
Cognitive	17.89 (5.11)	13.81 (6.93)	28.63 [§]
Behavioral	19.60 (5.54)	14.72 (7.55)	36.29 [§]
Avoidant	8.63 (4.22)	4.69 (3.84)	66.23 [§]
Parenting behavior			
F_monitoring	2.39 (.73)	2.60 (.75)	5.86 [†]
F_reasoning	2.61 (.73)	2.76 (.77)	2.64 [†]
F_inconsistency	2.05 (.58)	2.19 (.56)	12.13 [§]
F_over-expectation	2.47 (.77)	2.23 (.76)	7.87 [§]
F_intrusiveness	2.30 (.66)	2.06 (.58)	9.80 [§]
F_physical abuse	1.58 (.68)	1.37 (.49)	12.32 [§]
F_neglect	1.89 (.64)	1.59 (.55)	17.21 [§]
F_affection	2.72 (.71)	2.89 (.74)	4.57 [*]
M_monitoring	2.85 (.71)	2.95 (.76)	2.28
M_reasoning	2.72 (.67)	2.82 (.70)	2.11
M_inconsistency	2.25 (.59)	2.06 (.58)	7.67 [§]
M_over-expectation	2.57 (.74)	2.33 (.74)	7.72 [§]
M_intrusiveness	2.42 (.70)	2.23 (.63)	5.68 [†]
M_physical abuse	1.48 (.54)	1.35 (.43)	5.78 [†]
M_neglect	1.74 (.60)	1.51 (.52)	12.21 [§]
M_affection	2.97 (.64)	3.04 (.67)	1.77
Family support			
Cohesion	6.01 (2.62)	6.99 (2.19)	11.82 [§]
Expression	3.95 (1.69)	4.61 (1.66)	11.99 [§]
Conflict	3.48 (2.14)	2.59 (1.64)	15.02 [§]

* : p<.05, † : p<.10, ‡ : p<.01, § : p<.001
Means are adjusted by sex and SES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가족 간의 결합력(F(1,547)=11.82, p<.001)과 표현력 점수(F(1,547)=11.99, p<.001)는 유의하게 낮고 가족 간의 갈등점수(F(1,547)=15.02, p<.001)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동에서는 먼저 아버지의 경우를 볼 때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아버지의 감독(F(1,547)=5.86, p<.001)과 애정(F(1,547)=4.57, p<.05)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합리적 설명(F(1,547)=2.64, p<.10)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은 군(M±SD=2.60±0.73)이 낮은 군(M±SD=2.76±0.77)에 비해서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아버지의 비일관성(F(1,547)=12.13, p<.001), 과잉기대(F(1,547)=7.87, p<.001), 과잉간섭(F(1,547)=9.80, p<.001), 학대(F(1,547)=12.32, p<.001), 방치(F(1,547)=17.21, p<.001)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에서는 일관되게 스트레스

Table 3.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for predictors which significantly discriminate between high stress group and low stress group

Variables	Wilks's lamda	F	SDC*
Avoidant coping	.798	128.01	.629
Behavioral coping	.775	73.35	.471
Family expression	.747	56.97	-.258
SES	.733	45.83	.241
Family cohesiveness	.725	38.16	-.234

* : Standardized discriminant coefficient

가 높은 군이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어머니의 경우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나 긍정적 양육행동을 반영하는 어머니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군이 낮은 군에 비해서 평균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비일관성(F(1,547)=7.67, p<.001), 과잉기대(F(1,547)=7.72, p<.001), 과잉간섭(F(1,547)=5.68, p<.01), 학대(F(1,547)=5.78, p<.01), 방치(F(1,547)=12.21, p<.001)와 같이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반영하는 변인들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대처양식을 사용하는 측면에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여 인지적 대처양식(F(1,547)=28.63, p<.001), 행동적 대처양식(F(1,547)=36.29, p<.001), 회피적 대처양식(F(1,547)=66.23, p<.001)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3.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집단 간 판별분석

앞서 제시한 공변량 분석의 결과는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주요 종속변인 중 어떤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설명해준다. 이는 각 변인별로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알려줄 수 있지만, 어떤 변인을 가지고 예측해야 실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잘 구분되는지는 알 수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사용된 전체 변인을 대상으로 두 집단에 대해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회피적 대처, 행동적 대처, 표현력, 경제수준, 결합력의 순으로 두 집단을 잘 구분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스트레스 수준의 매개효과 분석

판별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변인들 중에서 경제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을 크게 가정환경요인과 대처방식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가정환경요인은 선행요인, 혹은 이미 존재하는 요인으로써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대처방식 요인은 결과적인 인지행동 반응요인으로써 스트레스를 지각한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즉, 가족 내 결합력과 표현력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 스트레스를 지각한 수준이 이후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때 가족 내 결합력이나 표현력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한 수준이 매개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Baron과 Kenny²³⁾가 권고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 내 결합력 혹은 표현력이 스트레스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각 대처양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회귀분석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각 대처양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회귀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수준의 효과를 제거한 후 결합력 혹은 표현력이 대처양식을 유의하게 예측하는지 회귀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Fig.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을 보면, 가족 내 결합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지각한 수준이 높고($\beta = -.24, p < .001$), 회피적 대처양식이 높았다($\beta = .43, p < .001$).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양식이 높았다($\beta = -.17, p < .001$).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의 효과를 제거하고 나면 가족 내 결합력이 회피적 대처양식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7, n.s.$). 즉, 낮은 가족 내 결합력은 스트레스 수준을 매개로 하여 회피적 대처양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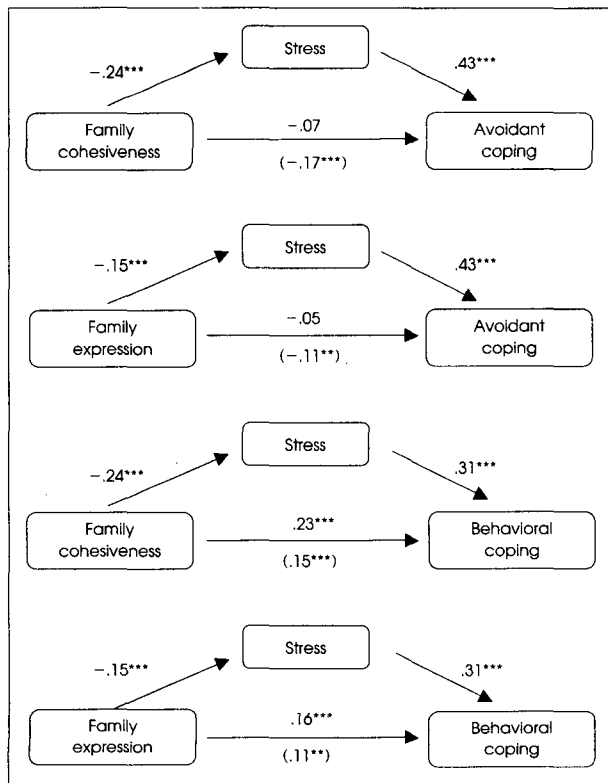


Fig. 1. Relationship among family support, perceived stress, coping style.

또한 가족 내 표현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지각한 수준이 높고($\beta = -.15, p < .001$), 회피적 대처방식이 높았다($\beta = .43, p < .001$).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방식이 높았다($\beta = -.11, p < .01$).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의 효과를 제거하고 나면 가족 내 표현력이 회피적 대처양식에 미치는 효과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았다($\beta = -.05, n.s.$). 즉, 낮은 가족 내 표현력은 스트레스 수준을 매개로 하여 회피적 행동양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행동적 대처양식에서는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가족내 결합력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beta = -.24, p < .001$), 행동적 대처양식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beta = .15, p < .001$). 즉, 가족 내 결합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은 높고 행동적 대처양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적 대처방식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 p < .001$). 이때 스트레스 수준의 매개효과를 제거하여도 가족 내 결합력($\beta = .23, p < .001$)은 행동적 대처양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가족 내 표현력의 경우에서도 유사한 결과로써 가족 내 표현력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거나($\beta = -.15, p < .001$), 행동적 대처양식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beta = .11, p < .01$). 즉, 가족 내 표현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은 높고 행동적 대처양식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은 높을수록 행동적 대처양식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 p < .001$). 이때 스트레스 수준의 매개효과를 제거하여도 가족 내 표현력($\beta = .16, p < .001$)은 행동적 대처양식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행동적 대처양식은 스트레스 수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족 내 결합력과 표현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고 찰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에서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이 가정환경 요인 및 개인의 대처방식 요인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스트레스와 연관된 이들 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매개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청소년 군에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되는 매개요인들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군을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높은 군과 낮은 군으로 구분하여 두 군간의 대처방식에 대하여 비교한 결과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낮은 군에 비하여 인지적 대처, 행동적 대처, 회피적 대처 방식의 사용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각된 스트레스의 양이 높은 청소년들에서 해당 스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긍정적-적극적 전략이나 부정적-회피적 전략이나에 상관없이 이들 모두를 총동원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두 군간의 가족 내 지지에서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군에서 가족 내 결합력과 표현력은 유의하게 낮은 반면, 가족 내 갈등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에 대하여 보호 역할을 해주는 가족간의 결합력과 표현력은 낮은 반면에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가족 내 갈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잘 부합되는 것으로 Dumont와 Provost²¹⁾는 가족 내 갈등이 높고 지지적인 분위기가 결여된 청소년들이 더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문제행동을 동반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와 부모양육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스트레스가 높은 군의 경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반영하는 아버지의 감독과 애정은 유의하게 낮고 아버지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와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에서도 긍정적인 양육행동에서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어머니의 비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와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에서는 일관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이 높은 군에서 부모 모두로부터 부정적인 양육경험을 일관되게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스트레스에 대한 높은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다변량 분석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서 가족 내 지지는 낮고 가족구성원간 갈등은 높은 환경에서 생활하며 부모의 양육행동에서도 부모 모두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방식에 있어서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낮은 집단에 비해 적극적 대처양식과 회피적 대처양식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수준과 가정환경요인, 대처요인들 간의 관계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하여 이들 요인에 대한 판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 결과, 가정환경 요인과 대처요인 중에서 스트레스가 높은 군과 낮은 군을 가장 잘 구분해 주는 판별요인은 회피적 대처, 행동적 대처, 표현력, 결합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회피적 대처는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사용하는 비적응적인 대처전략으로써 널

리 알려져 있다²⁵⁾. Herman-Stahl 등²⁶⁾은 청소년 여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생활사건 스트레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회피적 대처를 보이는 집단보다 우울증상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회피적 대처는 짜증과 같은 이자극성의 증가, 분노발작, 위험을 초래하기 쉬운 행동(risk behavior), 우울, 불안 및 과도하고 난잡한 성행위의 발생 등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²⁷⁾. 특히 신체적, 성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에서 회피적 대처양식이 흔하게 보고되어²⁸⁾ 회피적 대처양식은 지속적이고 높은 양의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발생되는 대처전략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²⁹⁾.

본 연구에서도 높은 정도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 군에서 높은 회피적 대처양식의 사용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나 이 전의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행동적 대처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회피적 대처 방식과 같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스트레스 수준이 다른 두 집단을 잘 구분하는 판별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매개효과 분석을 통하여 회피적 대처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들 판별요인과 높은 스트레스 수준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된 환경요인이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선행된 환경요인-스트레스-대처방식간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족 내 결합력이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지각한 수준이 높고 회피적 대처양식의 사용이 높았다. 또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회피적 대처양식의 사용이 더 높았다. 그러나 스트레스 수준의 효과를 제거하고 나면 가족 내 결합력이 회피적 대처양식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낮은 가족 내 결합력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매개로 하여 회피적 행동양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표현력 또한 이와 동일한 결과로써 낮은 가족 내 표현력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매개로 하여 회피적 행동양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행동적 대처양식에서는 스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스트레스의 효과를 제거하여도 가족 내 결합력과 표현력은 행동적 대처양식을 여전히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므로 행동적 대처양식은 스트레스 수준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족 내 결합력과 표현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낮은 가족 내 결합력과 표현력은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매개로 하여 회피적 대처양식을

증가시키지만, 반면에 스트레스 수준과 무관하게 행동적 대처양식의 사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족 내 지지적인 환경의 결여는 행동적 대처양식의 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적극적인 대처방식의 사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높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는 회피적 행동양식의 사용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처양식의 사용은 향후 정서적 문제의 발생을 줄여주고³⁰⁾ 회피적 대처양식의 지속적인 사용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후유증을 증가시킨다는³¹⁾ 것을 고려해 볼 때 가족 내 결합력과 표현력이 낮은 가정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의 경우, 비적응적인 대처전략 사용의 증가로 인해 다양한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군 설정에서 특정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군의 자료가 청소년 전체의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내용을 적절히 이해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였으며 인문계 고등학교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업부담과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므로 이들을 청소년 특유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대상군으로 선정하였다. 둘째로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집단의 구분에 있어서 청소년의 스트레스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상의 문제이다. 스트레스는 다양한 요인들이 관여하기 때문에 측정도구와 방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경험 검사지(LES)는 성인을 대상으로 고안된 설문지를 청소년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해석에서 주의를 요할 것이다. 세 번째로 설문 조사의 한계점을 들 수 있는데 주요 변인에 해당하는 부모양육행동이나 가족 환경의 평가에 있어서 청소년이 지각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기억이 왜곡되거나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경제적인 요인이 스트레스 수준을 판별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로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의 기본 목적에 부합되는 요인이 아니므로 적절히 통제하거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청소년에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가족환경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회피적 대처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서 해당 청소년의 문제행동 및 정서적 고통의 위험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이미 청소년기 이전부터 포괄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하며 부모교육과 계몽이 반드시 선행하여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References

- 1) Joseph S, Williams R, Yule W. Understanding post-traumatic stress: A psychosocial perspective on PTSD and treatment. London, Wiley;1997.
- 2) Spaccarelli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in child sexual abuse: A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994; 2:340-362.
- 3) Wills TA, McNamara G, Vaccaro D, Hirky AE. Escalated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grouping analysis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J Abnorm Psychol* 1996;105:166-180.
- 4) 피상순, 오상우, 박민철. 지각된 스트레스, 역기능적 태도, 자기 효능성, 사회적지지 및 대처양식이 물질남용 청소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000;39(2):297-308.
- 5) Johnson BM, Kenkel MB. Stress, coping and adjustment in female adolescent incest victims. *Child Abuse & Neglect* 1991;15: 293-305.
- 6) Saigh PA, Green BL, Korol M. The history and prevalence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ldren and adolescents. *J School psychol* 1996;34:107-131.
- 7) Cohen S, Wills TA.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 Bull* 1985;98:310-357.
- 8) Schreurs KMG, de Ridder DTD. Integration of coping and social support perspectives: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adaptation to chronic disease. *Clin Psychol Rev* 1997;17:89-112.
- 9) Newcomb MD, Harlow LL. Life events and substance use among adolescents. *J Pers Soc Psychol* 1986;51:564-577.
- 10)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1; 40(4):605-614.
- 11) Sato T, Sakado K, Uehara T, Narita T, Hirano S, Nishioka K, et al. Dysfunctional parenting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sample of employed Japanese adults: evidence for the affectless control hypothesis. *Psychol Med* 1998;28(3):737-742.
- 12) Rey JM, Plapp JM.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0;29:382-385.
- 13) Kaplan SJ, Pelcovitz D, Salzinger S, Weiner M, Mandel FS, Lesser ML, et al. Adolescent physical abuse: risk for adolescent psychiatric disorders. *Am J Psychiatry* 1998;155:954-959.
- 14) Cicchetti D, Troth SL.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on child abuse and neglect.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5;34:541-565.
- 15) Lewis DO. From abuse to violence: psychophysiological consequences of maltreatment.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1992;31(3):383-391.
- 16) Sarasin IG, Johnson GH, Siegel JM.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ctancy survey. *J Consult*

- Clin Psychol 1978;46:932-946.
- 17) 이영호. 귀인 양식, 생활사건, 사건 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1993.
 - 18) Holahan CJ, Moos RH. Personal and contextual determinants of coping strategies. *J Pers Soc Psychol* 1987;52:946-955.
 - 19) 이유리, 권정혜. 비행 청소년의 음주행동에 관한 일 연구-사회학습 이론 모형과 스트레스-취약성 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연차 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1997. p.717-730.
 - 20) Moos RH, Moos B. Family Environment Scale Manual. Palo Alto,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1986.
 - 21) 신윤오, 조수철. 한국형 가정환경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1995;34:280-290.
 - 22)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1999.
 - 23) Baron RM, Kenny D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 Personal Soc Psychol* 1986;51:1173-1182.
 - 24) Dumont M, Provost MA. Resilience in adolescents: Protective role of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ies, self-esteem, and social activities on experience of stress and depression. *J Youth Adolesc* 1999;28:343-363.
 - 25) Runtz MG, Shallow JR.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as mediators of adult adjustment following childhood maltreatment. *Child Abuse Neglect* 1997;21:211-226.
 - 26) Herman-Stahl MA, Stemmler M, Petersen AC. Approach and avoidant coping: Implications for adolescent mental health. *J Youth Adoles* 1995;24:649-665.
 - 27) Spaccarelli S, Fuchs C. Variability in symptom expression among sexually abused girls: Developing multivariate models. *J Clin Child Psychol* 1997;1:24-35.
 - 28) Wolfe VV, Birt J. Child sexual abuse.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s. New York, Guilford Press;1997. p.596-605.
 - 29) Lengua LJ, Sandler IN. Self-regulation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coping and symptomatology in children of divorce. *J Abnorm Child Psychol* 1996;6:681-701.
 - 30) Tremblay C, Hebert M, Piche C.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of consequences in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Neglect* 1999;23:929-945.
 - 31) Bal S, Van Oost P, De Bourdeaudhuij I, Crombez G. Avoidant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self-reported sexual abuse and stress-related symptoms in adolescents. *Child Abuse Neglect* 2003;27:883-897.

COPING STYLE, FAMILY SUPPORT, PARENTING BEHAVIOR IN ADOLESCENTS WITH HIGHLY PERCEIVED STRESS

**In Hee Cho, M.D., Byoung Jo Lee, M.D.,
Jee Hyun Ha, M.D., Ph.D., Hee Jeong Yoo, M.D., Ph.D.**
Department of Psychiatry, Gil Medical Center, Gachon Medical School, Incheon

Objectives : This study was intended to compare coping style, family support, and parenting behavior between adolescent groups with different levels of perceived stress.

Methods : A total of 795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irst, they were tested on the Perceived Stress Scale and then were separated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 level of perceived stress. Both groups completed the Scale for the Coping Style, the Family Environment Scale (relationship subscale) and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Results : The high stress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all their coping scores than the low stress group. Also, the high stress group had significantly higher family conflict scores, lower family cohesiveness scores and lower expression scores than the low stress group. The high stress group experienced negative parenting behavior from both parents more often than the low stress group. In the adolescents with low family cohesiveness and expression, the use of active behavioral coping was decreased, if the higher stressful events occurred. The use of avoidant coping by these adolescents increased when there were higher levels of stress in their environment.

Conclusion : Low family support directly reduced the usage of active behavioral coping and increased the use of avoidant coping strategy through the mediation of high stress condition.

KEY WORDS : Adolescent · Stress · Avoidant coping · Family environment.